

금요 수필

아름다운 기지제 공원

전주에 있는 기지제공원이 국화를 심고 아름다워졌다. 이 공원은 공주, 순창에서 오는 첫 번째 관광 공원이다. 그곳은 매일 전주 시내에서 파견된 정원관리자들이 화초와 나무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화단주위에 돌을 쌓고, 물에 잠긴 돌을 꺼내어 다시 깔았다. 돌을 깔아 정리하니 하나의 멋진 정원이 되었다. 정원사들은 정성껏 한 포기씩 국화를 심었다. 가을이 되니 국화꽃이 진한 향기를 풍어 내 내비와 번뜩이 보였다. 꽃을 보고 아름다움에 취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리라. 부지하게 핀 국화꽃 사이에, 매들 나경초와 데드 웨드를 심고 물을 주었다. 씨리나무와 덩굴참마를 자르니 더없이 아름답게 시태를 띠고 있었다. 누구인가 딱 흘린 대기가 내근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다. 남에게 캐뎀더 시는 것이 이런 즐거움이라. 인하여서 누가 내 한 잎을 칭찬해 줄 때 행복한 보람을 느낀다. 피아박에 앉아 잠초를 뽑고, 물을 마시면 시원한 단맛도 칭찬 속에는 울적 신이 더 난다. 마병초와 휘발채나무, 가지나아 꽃을 이삭하고 나무에 물을 주는 두박 한 아름다운 여인의 수도 꽃을 담아 예쁘게 보였다. 편안한 꽃 구경, 햇볕에 그은 얼굴에서 연신 웃음이 떠나지 않는 모습이 고와 보였다. 그들은 꽃을 좋아하고 꽃들은 그늘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가 오면,



정근 수필가

가끔 공원이 물에 잠겼다. 호수의 나무 담장에는 하얀 새똥이 보였다. 덩굴장미가 탐스럽게 피니, 흰말채 나무꽃도 피뎀하여 자못 아름답게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 꽃들을 보며 의자에 앉아 쉬고 있으니, 옛 추억이 떠올랐다. 삼십여년 전 어느 날 오후, 부방을 부고 친구와 일동이를 가지고 호수로 가는 길이었다. 당시, 호수의 뒷부분은 현수담으로 물을 품어 놓아 사를 지었다. 그것도 몇 시간 켜어 물을 길어냈다. 물 솟는 곳은 깊은 호수처럼 웅덩이가 되었다. 그 논길을 부수고 걸었을 때다. 웅덩이 난간에 지기로 언덕을 기리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무척 당황했다. 먼저 달려가 친구가 그녀를 잔자, 탄력으로 그녀를 껴안고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자살 순간이었다. 낙하지실에서 보니 4m 정도 되어 보였다. 그들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렸다.

한 손으로 부방을 머리 위에 던졌다. 한 손으로 부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그녀의 목을 잡고 있었다. 힘껏 부방을 던졌다. 낮은 언덕 쪽으로 유유히. 그녀는 물 밖에 나오자마자 누웠다. 옆으로 눕히는 순간 입과 코에서 물이 쏟아졌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신이 없었다. 눈을 떴다. 그녀의 모습이 이상했다. 얇은 결막만 있어서 맨득이 흰하게 보였다. 거리를 뒤로 젖히고 언덕을 자세히 보니 근처에 사는 동료 부인이었다. 나중에 웃었지만, 친구와 나는 수염할 줄 모르는 맥주병이었다. 그 때도 다행인 것은 주검으로 가는 자를, 살려했다는 게 큰 보람이었다. 그리하여, 그날 문고기는 어디로 가고, 그녀를 집에 데려다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자제하고 싶지 않지만 이번 삼류 소설 사담 이야기 같았다. 그 후 몇 번 전화가 왔다. 그때마다 용기 내어 할 사시라고 말

독자제언

농기계 사고 예방,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 지역에서는 트랙터, 경운기, 콤팩트 등 각종 농기계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농기계 안전사고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농기계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대부분이 고령의 농업인에게 발생하고, 한 번 사고가 나면 중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에서 더욱 심각하다. 특히 경운기 전복, 트랙터 협착, 야간 도로 주행 중 추돌사고 등은 농번기 대표적인 사고 유형으로 꼽힌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첫째, 농기계 사용 전 반드시 시연 점검을 실시해 브레이크, 조향장치, 등화장치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여야 한다. 경찰에서도 농번기 기간 동안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인 스스로의 안전의식이다. 작은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농번기는 생계를 위한 중요한 시기인 동시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다.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더해질 때 비로소 안전한 농촌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유서준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내 · 외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서예가 김영희의 '살아있는 전통'

서예가 김영희의 필력이 화선지라는 익숙한 경계를 넘어 캔버스와 만났다. 안뜰 김영희(77) 작가가 서예의 정신을 캔버스 위로 옮겨 심은 것이다. 그는 "내 자식조차 거실에 걸어 두지 않는 그림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살아있는 전통이겠느냐"는 자문을 던졌다. 4월 7일부터 12일까지 교동미술관 분관에서 열리는 개인전 '변화향기 불바람 타고는 서예를 현대인의 일상으로 복원해내려는 작가의 치열한 기록이다. 작가가 10년 전부터 변화를 시도했다. 아파트라는 현대적 거주공간에서 전통 예자와 화선지가 공간과 불협화음을 내며 외면 받기 때문이다. 그는 서구적 재료인 캔버스를 선택하며 그 위에 흐르는 정신만큼은 전통 서예를 고수했다. 붓 끝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느라 안구 싯 핏줄이 세 번이나 터졌을 만큼 몰입했다. 52점의 작품이 걸리는 이번 전시에는 손녀에게 선물했던 그림을 다시 빌려와 내놓기도 했다. 작품 '가을 언덕 위에 머뭇은 동일한 구도로 다시 그리려 해도 당시의 필치가 재현되지 않아 결국 원본을 다시 청해왔다. 초등학교 교사 시절 접았던 붓이 평생의 동반자가 된 이후 국문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을 지냈다. 그 때도 여전히 2주에 한 번씩 진주에 계신 스승을 찾아가다. 배움과 고민을 멈추지 않는 엄격한 자기검열은 그의 작품세계를 지탱하는 바탕이다.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맑은 향기를 내뿜는 매화처럼, 삶의 고난을 딛고 일어난 이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건네고 싶다는 바람 때문이다.

노인회 전복연합회, 게이트볼 대회 개최

대한노인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는 4월 7일, 전주시 국민생활체육 게이트볼 전용구장에서 제35회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경기 게이트볼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오는 6월 경북 영주에서 열리는 '제24회 대통령기 전국게이트볼대회' 출전을 위한 전북 대표 선발전을 겸해 열려, 참가 선수들의 높은 집중도 속에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경기는 남녀 각 부문별로 진행되었으며 어르신 체육 특유의 따뜻한 스포츠 정신을 실천했다. 경기장 곳곳에서는 응원과 환호가 이어지며 활기찬 분위기가 조성됐다. 남자부 우승은 고창군지회, 준우승 순창군지회, 공동3위 임실군·부안군지회가 차지했다. 여자부는 정읍시지회가 우승, 전주시지회가 준우승, 군산시·장수군지회가 공

동 3위를 기록했다. 입상팀에게는 소정의 시상금과 함께 남녀 1~2위 팀에는 제24회 대통령기 전국 게이트볼대회 참가 자격이, 남녀 3위 팀에는 제13회 전국 노인건강대축제 전북 대표 출전권이 부여됐다. 김두봉 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장은 "게이트볼은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은 물론 치매 예방과 사회적 교류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생활 체육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김두봉 연합회장을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 지회장과 선수단, 이영란 전북특별자치도 교령친화정책과장, 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 인원,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 게이트볼협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